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① ㉠에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 ㉡에는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난다.  
**전원** 田園 (밭田 동산園) 논과 밭이라는 뜻으로,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郊外)를 이르는 말. 『한가로운 **전원** 풍경.』 그는 부귀를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고 **전원**으로 돌아와서 청빈한 은거 생활로 일생을 보냈다.  
**생활상** 生活相 (날生 살活 서로相) 생활해 나가는 모습. 『비참한 **생활상**.』 그 필름에는 난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동화되는** 同化되는 (같을同 뉘화) /동화되다/ 성질, 양식(樣式), 사상 따위가 다르던 것이 서로 같게 되다. 『자연에 **동화**되다.』 내 생활은 차츰 그런대로 그곳 나름의 풍속에 **동화**되어 가기 시작했다. <조해일, 아메리카>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③ ㉠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에는 배의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이 나타난다.  
**연상된** 聯想되-ㄴ (잇닿을聯 생각想) /연상되다/ 『심리』 하나의 관념으로 인해 다른 관념이 불러일으켜지다. 『그의 외모는 한마디로 인도의 건디가 **연상**되는 그런 물골이었다. <전상국, 하늘 아래 그 자리>  
**청아한** 淸雅하-ㄴ (맑을淸 아담할雅) /청아하다/ 속된 티가 없이 맑고 아름답다. 『남양의 달밤을 상상케 하는 애련하고도 청아한 선율에 회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심훈, 상록수>  
**풍경** 風景 (바람風 경치景) 「1」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모습.=경치. 『단풍이 곱게 물든 시골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처럼 보였다. 「2」 어떤 **정경**\*이나 상황. 『밤 기차 속의 **풍경**. \*정경: 정서를 자아내는 흥취와 경치.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⑤ ㉠에는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이, ㉡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나타난다.  
**변화하는** 變化하는 (변할變 뉘화) /변화하다/ 사물의 성질, 모양, 상태 따위가 바뀌어 달라지다. 『아이들은 점차 모범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문호 개방 이후로 양국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했다.  
**생동감** 生動感 (날生 움직일動 느낄感) 생기 있게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 『복잡한 시장 안에서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만족감** 滿足感 (찰滿 발족 느낄感) **만족한\*** 느낌. 『오늘 드디어 일을 마쳤다는 **만족감**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족하다**: 「1」 마음에 흡족하다. 『**만족한** 얼굴. 「2」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다. 『**만족한** 생활을 즐기다. 『이 공사는 두 달이면 **만족**하리라 본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보기>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풍요로운** 豐饒롭-은 (풍년豐 넉넉할饒) /풍요롭다/ 흥백 많아서 넉넉함이 있다.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 저축을 하다.  
**결실** 結實 (맺을結 열매實) 「1」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물. 또는 그런 열매. ≒열매맺이.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비슷한 말』 결과(結果)\* 「2」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짐. 또는 그런 성과. 『성실한 노력의 **결실**.  
\***결과(結果)** 「1」 열매를 맺음. 또는 그 열매. ≒과. 「2」 어떤 원인으로 결말이 생김. 또는 그런 결말의 상태.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② ㉠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가, ㉡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나타난다.  
**한가로운** 閑暇롭-은 (한가할閑 한가하게 지낼暇) /한가롭다/ 한가한\* 느낌이 있다. \*한가하다: 겨를\*이 생겨 여유가 있다. \*겨를 ≒ 틈  
**흥취** 興趣 (일어날興 흥취趣) **흥\*과 취미\*\***를 아울러 이르는 말. 『**흥취**를 돋우다. \***흥**: 재미나 즐거움을 일어나게 하는 감정. \*\***취미**: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것.  
**고독** 孤獨 (외로울孤 홀로獨)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지금 내가 유폐되어 있는 이 철저한 **고독**과 피로와 무력감의 탑을 그대가 상상할 수 있다면...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해소**하려는 解消하려는 (풀解 꺼질消) /해소하다/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 『실업 문제를 **해소**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1번

④ ㉠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  
**운치** 韻致 (운韻 이를致) **고상**하고 **우아**한 멋. ≒운격. 『그 집의 정원은 **운치**가 있어 보인다. 『자꾸만 추억을 향해 줄달음치려는 여자의 앞길을 남자는 전혀 **운치**를 모르는 투박한 대꾸로 번번이 가로막고 있었다. <윤홍길, 완장>  
**풍류** 風流 (바람風 흐를流)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또는 그렇게 노는 일. 『학선이가 정자에 앉아서 화주 한 잔을 드는데, 과연 설경 가운데 앉은 **풍류**가 그럴듯하였다. <황석영, 장길산>  
**흥겨운** 興聳-은 (일어날興) /흥겹다/ 매우 **흥**이 나서 즐겁다. 『**흥겨운** 노래. 『개천에서 아낙네들이 두드리는 빨랫방망이 소리가 방정맞고도 **흥겨웠다**. <박완서, 미망>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보기>

17세기 가사 「월선현삼속경가」는 월선현 주변의 16**경관**을 그린 작품으로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읊으면서도 현실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전원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경관** 景觀 (경치景 볼觀) 산이나 들, 강, 바다 따위의 자연이나 지역의 **풍경**. 『**경관**이 빼어나다. 『설악산의 주변 **경관**이 수려하다.  
**유유자적**한 悠悠自適하-ㄴ (멀悠 스스로自 갈適) /유유자적하다/ 속세를 떠나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살다. ≒유연자적하다. 『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나는 종종 세속을 떠나 **유유자적**하는 나그네의 삶에 매력을 느낀다.  
**관심** 關心 (빚장關 마음心)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또는 그런 **마음**이나 **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다. 『그는 다년간 노인의 복지 문제에 **관심**을 쏟아 왔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보기>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 등을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현장감** 있게 노래했다.  
**여유로운** 餘裕롭-은 (남을餘 넉넉할裕) /여유롭다/ **여유\***가 있다.  
\***여유(餘裕)** 「1」 물질적·공간적·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빌려 다오. 「2」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현장감** 現場感 (나타날現 마당場 느낄感)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느낌. 『좀처럼 붙잡아 낼 수 없던 전정터의 그 절박한 **현장감**을 생생하게 실감함으로써... <김인배, 방울뱀>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① 전원생활에서 목격한 풍요로운 결실을 '만경 황운'에 비유해 드러냈군.

만경 萬頃 (일만萬 이랑頃) 아주 많은 이랑이라는 뜻으로,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이번 여정에 남겨 놓은 죽적을 더듬어 보니, 운파 만경의 호남 천지를 종횡무진하게 유량한 거리가 무려 3천7백여 리였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황운 黃雲 (누를黃 구름雲) 「1」 누런 빛깔의 구름. 「2」 넓은 들판에 벼가 누렇게 익은 모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비유 比喻 (견줄비 깨달음喩)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일. 『낙타가 바늘구멍을 지나기보다 그들이 천국에 가기가 어려울 것이란 비유의 말로 가진 자를 깨우치기는 하겠지만... <이문열, 시대와의 불화>』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③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여문 '블근 게'와 살진 '눌은 닭'과 같이 색채 이미지에 담아 드러냈군.

풍족함 豐足하-ㅁ (풍년豐 발足) /풍족하다/ 매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다. 『살림이 풍족하다.』

색채 色彩 (빛色 채색彩) 「1」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그 거죽에 나타나는 특유한 빛.=빛깔. 『색채가 짙다.』 「2」 사물을 표현하거나 그것을 대하는 태도 따위에서 드러나는 일정한 경향이나 성질. 『종교적 색채를 띠다.』

이미지 image 「1」 『문학』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 =상상. 『이 작품은 청각적 이미지가 뛰어나다.』 「2」 어떤 사람이나 사물로부터 받는 느낌. 『서민적 이미지.』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⑤ 전원생활의 여유를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을 '생리라 괴로오랴'와 같은 설의적인 표현으로 드러냈군.

생업 生業 (날生 업業) 살아가기 위하여 하는 일. 『생업에 종사하다.』 『이곳 사람들은 어업을 생업으로 삼고 있습니다.』

고단함 고단하-ㅁ /고단하다/ 「1」 【...이】 몸이 지쳐서 느슨하다. 『몸이 고단하다.』 「2」 일이 몹시 피곤할 정도로 힘들다. 『우리가 못 먹고 일이 고단해서 얼굴이 타는 것이 아니고... <문순태, 타오르는 강>』 「3」 【...이】【...기가】 처지가 좋지 못해 몹시 힘들다. 『삶이 고단하다.』

설의 設疑 (베풀設 의심疑) 의문을 내세움.

편집자 해설) '설의적(인) 표현' ≡ 설의법\*.

\*설의법 設疑法 『문학』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①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다채로운 多彩롭-은 (많을多 채색彩) /다채롭다/ 여러 가지 색채나 형태, 종류 따위가 한데 어울리어 호화스럽다. ≡컬러풀하다. 『가를 운동회에서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제시하며 提示하-며 (곧提 보일示) /제시하다/ 【...에/에게 ...을】 「1」 어떠한 의사를 말이나 글로 나타내어 보이게 하다. 『그가 학계에 제시한 가설은 20년 만에 증명되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회사에 공사가 돌아갔다.』 「2」 검사나 검열 따위를 위하여 물품을 내어 보이게 하다.

감정 感情 (느낄感 뜻情) 어떤 현상이나 일에 대하여 일어나는 마음이나 느끼는 기분. 『감정이 풍부하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른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②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를 '내노리 헛자스라'와 같은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군.

여유 餘裕 (남을餘 넉넉裕) 「1」 물질적·공간적·시간적으로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상태. 『생활에 여유가 없다.』 『돈이 여유가 있으면 빌려다오.』 「2」 느긋하고 차분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마음의 상태. 또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일을 처리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에 여유를 두고 잘 생각해 보아라.』 『지금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

청유형 請誘形 (청할請 꺾誘 형상形) 『언어』 동사의 활용형의 하나.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자', '자꾸나', '세', '읍시다' 따위가 붙는 꼴이다.

표현 表現 (겉表 나타날現)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냄. 『표현 방법이 서투르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2번

④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을 '밤불이 불가시니'와 '아적들이 미러오니'와 같은 묘사를 활용해 드러냈군.

묘사 描寫 (그릴描 베낄寫) 어떤 대상이나 사물, 현상 따위를 언어로 서술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함. 『심리 묘사.』 『상황 묘사.』 『사실에 바탕을 둔 충실한 묘사.』 『생생한 현장 묘사.』 『그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 묘사가 뛰어나다.』

활용해 活用하-아 (살活 쓸用) /활용하다/ 「1」 【...을 ...에】【...을 ...으로】 충분히 잘 이용하다. 『여가를 자기 계발에 잘 활용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장운이란 녀석은 지게질이 처음이랑데도, 지게 고다리와 매기를 곧잘 활용하고 있었다. <이문구, 장한몽>』 『놀리는 땅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다.』 「2」 『언어』 용언의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에 변하는 말이 붙어 문장의 성격을 바꾸다.

설의적 표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제시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표현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엇느냐 -만홍(윤선도)  
→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누운 것은 아니다.

『낙화 광풍(落花狂風)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병산육곡(권구)  
→ 꽃을 떨어뜨리는 사나운 바람이 불어 어느 가지에도 의지하기 어렵다.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 지난날의 꿈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②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여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있다.

언급하여 言及하-여 (말씀言 미칠及) /언급하다/ 【...에】【...을】【-고】 어떤 문제에 대하여 말하다. 『그 평론가는 앞서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장관은 앞으로 개혁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양 미술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결백 潔白 (깨끗할潔 흰白) 「1」 깨끗하고 힘. 「2」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음. 『결백을 주장하다.』 \*조출하다: 아담하고 깨끗하다. \*\*허물: 「1」 잘못 저지른 실수. 「2」 남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거리. =홍.

입증하고 立證하고 (설立 증거證) /입증하다/ 【...을】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 『알리바이를 입증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③ 상대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심리적** 心理的 (마음心 다스릴理 과녁的) **마음의 작용과 의식 상태에 관한**. 『**심리적** 부담감. 『**심리적** 안정을 찾다.

**거리감** 距離感 (떨어질距 떠날離 느낄感) 「1」 어떤 대상과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느낌. 「2」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간격이 있다는 느낌**. **보통 친숙하지 않아 서로 마음을 트고 지낼 수 없는 서먹서먹한 느낌을 이른다**. 『20년의 연령 차에서 오는 세대의 **거리감**을 그는 억지로 부인해 본다. <<전광용, 꺼삐딴 리>>

**자제**하고 自制하고 (스스로自 억제할制) /자제하다/ 【…을】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다. 『욕구를 **자제**하다. 『흥분을 **자제**하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⑤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며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있다.

**관련된** 關聯되-ㄴ (빗장關 잇닿을聯) /관련되다/ 【(…과)】【…에】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얽혀서 가까운 관계에 있다. 『약과 **관련된** 범죄.

**열거**하며 列擧하며 (벌일列 들擧) /열거하다/ 【…을】 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날날이 죽 늘어놓다**. 『그 일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열거**하라.

**무력감** 無力感 (없을無 힘力 느낄感) 스스로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드는 **허탈하고 맥 빠진 듯한 느낌**. 『경기에서 너무 벅찬 상대를 만나면 **무력감**이 든다. 『하는 일마다 제대로 안 되자 그는 **무력감**에 빠졌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② 작가가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신도 **살피려** 하는 것을 통해 작가는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살피려** /살피다/ 【…을】 「1」 두루두루 주의하여 자세히 보다. 『사방을 **살피**다. 「2」 형편이나 사정 따위를 자세히 알아보다. 『민심을 **살피**다. 「3」 **자세히 따지거나 헤아려 보다**. 『감정을 헤아리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잡아, 상대방과의 관계를 **살피는** 일이며,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한다는 뜻이다. <<박목월, 구름의 서정>> 『가부(家夫) 잃어 텅 빈 집안에 **가주(家主)**가 되게 생긴 저의 전후를 **살피**를 적에, 저까지 정신을 잃고 수심에만 잠길 수는 없는 탓이올시다. <<최명희, 혼불>>

**공감**하고 共感하고 (함께共 느낄感) /공감하다/ 【…에】【…을】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 『그들의 분노에 **공감**하다. 『아마도 제 주장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⑤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하여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욕**이 없’다고 **평한** 것을 통해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김을 알 수 있군.

**대과** 大科 (큰大 품등科) 『역사』 **과거(科擧)의 문과와 무과를 소과(小科)에 상대하여 이르던 말**.

**급제** 及第 (미칠及 차례第) 「1」 시험이나 검사 따위에 합격함. 「2」 『역사』 **과거에 합격하던 일**.

**사욕** 私慾 (사사로울私 욕심慾) 자기 한 개인의 이익만을 꾀하는 욕심.

**평한** 評하-ㄴ (품평評) /평하다/ 【…을 -게】【…을 -고】【-고】 ((‘…을’ 대신에 ‘…에’ 대하여가 쓰이기도 한다)) **좋고 나쁨, 잘하고 못함, 옳고 그름 따위를 평가하다**. 『사람들은 그 청년을 좋게 평하였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3번

④ 질문에 답변하며 **현실**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현실** 現實 (나타날現 열매實)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

『분단 **현실**. 『어려운 농촌 **현실**. 『**현실**을 직시하다.

**대처**하는 對處하는 (대답할對 곳處) /대처하다/ 【…에】 어떤 정세나 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조치를 취하다**.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다.

**밝**히고 /밝히다/ ■ 「6」 진리, 가치, 옳고 그름 따위를 판단하여 드러내 알리다. 『사리를 **밝**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일은 꼭 진실을 꼭 **밝**히고야 말겠다. ■ 【…에/에게 …을】 드러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내용, 생각 따위를 드러내 알리다. 『언론에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밝**히다. 『경찰에게 이름과 신분을 **밝**히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① 벗이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해 벗의 **가치관**을 알 수 있군.

**영화** 榮華 (꽃榮 빛날華)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남. 『돈이나 권세나 세상의 모든 **영화**는 우리의 육신과 함께 잠깐 머무나 곧 지나가는 것이니라. <<김동리, 사반의 십자가>>

**중시**하는 重視하는(중요할重 불視) /중시하다/ 【…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만큼 매우 크고 중요하게 여기다. =중대시하다. 『개성을 **중시**하다. 『전통을 **중시**하다.

**가치관** 價值觀 (값價 값值 불觀) 『심리』 **가치에 대한 관점**.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의 사상(事象)에 대하여 가지는 **평가의 근본적 태도**이다. 『남은 **가치관**. 『보수적 **가치관**.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4번

④ 벗이 ‘강태공’과 ‘엄자룡’을 들어 ‘내가 감히’라는 말을 언급한 것을 통해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벗의 겸손한 **성품**을 알 수 있군.

**미치지** /미치다/ 「1」 【…에/에게】【…으로】 **공간적 거리나 수준 따위가 일정한 선에 닿다**. 『우리 편 선수는 결승점에 못 **미쳐**서 넘어지고 말았다. 「2」 【…에/에게 (…을)】 **영향이나 작용 따위가 대상에 가하여지다**. 또는 그것을 가하다. 『이번 광고는 판매량을 높이는 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성품** 性品 (성품性 물건品) 「1」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강직한 **성품**. 『**성품**이 까다롭다. \*강직하다: 마음이 깨끗하고 곧다.

출처: 2020학년도 수능 25번

① ㉠은 ‘내’가 ‘강호’에서의 **은거**를 긍정하지만 **정치** 현실에 **미련**이 있음을, ㉡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담고 있지만 ‘강호’에 은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은거** 隱居 (숨을隱 살居) 「1」 세상을 피하여 숨어서 삶. 「3」 **예전에, 벼슬자리에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던 일**.

**정치** 政治 (정사政 다스릴治)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편집자 주: 고전시가에 나타난 **정치**는 화자가 신하로서 임금을 돕는 모든 행위로 이해하면 됨.)

**미련** 未練 (아닐未 익힐練)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 있는 마음**. 『**미련**을 버리다.